

목포~무안 남악·오룡 잇는 '전남형 트램' 2027년 착공

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착수...최적 노선·경제성 등 분석 16km 구축 4000억 소요 추산... 2025년 국가계획 반영 관건

영산강과 영산호를 따라 목포에서 무안 남악·오룡 신도시를 오가는 수소 트램을 오는 2035년이면 타볼 수 있게 된다. 전남도는 친환경 교통수단 '전남형 트램' 도입을 위해 선제적으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했다.

오는 2025년 정부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2027년 착공한다는 것이 전남도의 계획이다. 16km의 트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4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남 서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신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발표한 '전남형 트램'과 관련 6월 사전타당성조사 위한 추정예산 3억원을 확보하고 7월 용역을 본격 착수해 세부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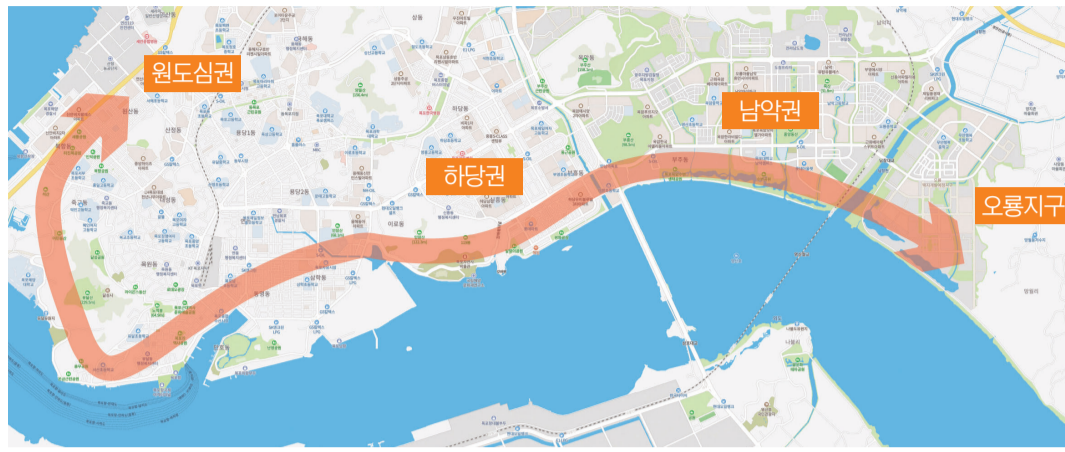
울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이 선정돼 1년간 최적의 노선과 적정 차량시스템 도입 및 경제성(B/C) 등을 분석한 후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전남도는 트램 세부계획이 완성되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승인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 확정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형 트램은 목포 구도심의 근대화 거리에서 하당을 거쳐 무안 남악·오룡신도시까지 구도심과 신도시 간 접근성을 개선해 서남권의 도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트램은 전기나 수소를 이용해 움직이기 때문에 소음과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친환경 첨단교통수단이다.

편리성과 관광기능 등을 두루 갖춘 경량전철이



'전남형 트램' 노선도



트램 모델

어서 전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중앙지하철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다.

부산, 대전, 인천, 울산, 창원 등 전국 지자체들이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하고 용역 과정에서 한국철도기

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유기적 협조를 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남형 트램이 건설되면 지역 명소와 주요 거점을 잇는 새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전남 서남권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새로운 지방시대의 첫 발이 되도록 신속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해 '전남형 트램'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도시재생사업에 '스페인 혁신지구 모델' 접목

광주시 방문단 '22@혁신지구'·'람블라스 거리' 벤치마킹

광주시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혁신지구 개발방식을 접목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은 23~24일(현지 시간) 세계적인 스마트 도시재생 혁신 성공모델로 꼽히는 스페인 '22@바르셀로나 혁신지구'와 보행자 중심도시인 '람블라스 거리' 등을 벤치마킹했다.

대표단은 지방정부 경제개발기관인 바르셀로나 약터바분부를 방문해 파우 솔라리아 바르셀로나 시청 국제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22@플랜'을 소개받고 '22@혁신지구' 곳곳을 둘러봤다.

대표단은 섬유공장의 커다란 골목이 보존된 미

디아파크 광장, 리모델링을 통해 대학·도서관으로 탈바꿈한 폐공장, 공공기여로 조성된 녹지(공원), 공유자전거 시설, 친환경 건축물과 22@의 랜드마크인 아그바타워 등을 살펴보고,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22@혁신지구'는 바르셀로나 지방정부가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쇠퇴한 공업지구를 지식기반산업·교육기관·주거 등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혁신지구로 탈바꿈시킨 스마트 도시재생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파우 솔라리아 국장은 "경쟁력, 지속가능성, 형평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

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는 공간은 보존하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정주여건에 더해 창업·기업·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을 키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르셀로나의 성공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시장은 "도시에 어떤 가치를 담느냐에 따라 도시의 미래가 크게 달라진다. 보행자 중심, 녹지 확대 등 인간을 최우선에 둔 공공성 확보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시재생, 도심개발 등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현안이 많고, 이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바르셀로나 성공사례를 광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공감 행정 실현' 친절교육

전 공무원 대상 고충 민원 대응·직원 심리 안정화 등

전남도가 '도민공감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전화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 기본교육을 비롯해 고충 민원 대응 전략, 직원 심리 안정화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2023년 상반기 전화친절도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전화 민원 응대 우수사례와 부진사례의 녹음과 일을 직접 들어보고 문제점과 개선할 점 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김명로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민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해서 친절교육을 할 계획"이라며 "일상업무 과정에 친절을 생활화해 도민공감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해 매년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을 가장해 친절도를 평가하는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지자체 연결하는 테마관광도로 발굴해야"

박문옥 도의원 "관광 시너지"

박문옥(민주·목포 3) 전남도의원은 최근 도의회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회 활동으로 국토안보연구원 특수교관실 고흥분소 현장을 찾아 "전남의 여러 지자체를 묶을 수 있는 '테마관광도로' 명과 '여수 백리섬섬길'과 같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관광도로명'을 발굴해 홍보하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전남도에 주문했다.

박 의원은 "유럽과 같은 세계적 관광지에서는 네덜란드 톨립, 노르웨이 피오르드 해안 절경, 프랑스 포도주 생산 지대 등 '관광도로(Tourist Route)'가 높은 관광 자원"이라며 "국내 제 1호 관광도로로 지정·추진 중인 여수 '백리섬섬길' 처



럼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는 도로 곳곳에 '관광도로네이밍 브랜드화' 사업을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역과 지역, 섬과 섬을 연결하는 안전한 도로 위에 주변 경관과 자연의 관광·문화적 의미를 모두 살릴 수 있는 지역 특색 반영 '관광도로명'을 발굴·홍보에 나선다면 '안전이 검증된 도로'와 '관광'의 시너지효과로 건축물을 활용한 관광효과에도 한 몫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승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의회 5·18 특위, 공식 활동 시작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26일 주요 사적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시의원 9명 민주묘지 참배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는 26일 5·18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정다운 위원장과 특위 소속 시의원 9명은 이날 국립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주요 사적지를 찾아 현장점검을 했다.

한국 현대사와 5·18 서적을 다수 집필한 노영기 조선대 교수가 동행해 역사적 배경과 가치를 해설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지하층 누수가 발생한 505 보안부대 등 5·18 사적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존 방안과 향후 활용 계획도 논의했다.

정다운은 5·18 특위 위원장은 "일부 사적지의 처참한 모습이 오늘날 5·18 민주화운동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관리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